

영국 대학의 연구실적 성적표

金 基 國¹⁾

작년 연말, 고등교육자금위원회(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HEFCE)는 2,700개 학과, 50,000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영국 대학들의 연구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1986, 1989, 1992년에 이어 네 번째로 시행된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 1993년의 학제 개편에 의해 정식 대학으로 승격된 과거의 폴리테크닉(Polytechnic)들이 평가 대상에 정식으로 포함됨에 따라 경쟁이 훨씬 치열해졌으며, 이와 함께 이 평가 결과를 근거로 향후 4년간의 각 대학들에 대한 영국 정부의 지원금 규모가 결정된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워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평가 단계를 과거의 5단계(1, 2, 3, 4, 5)에서 7단계(1, 2, 3a, 3b, 4, 5, 5*)로 더욱 세분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가장 낮은 두단계의 평가(1 및 2)를 받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과거 5단계로 평가하던 때에는 가장 낮은 단계의 평가(1)를 받은 한가지 경우에만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었다.

HEFCE는 이번 평가 결과, 영국 대학들이 산출하고 있는 우수한 연구 결과들이 일부 특정 대학에 편중되지 않고 거의 모든 대학들에 광범위하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연구의 평균 수준도 한층 향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 바 이같은 사실은 영국의 과학기반이 매우 건실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증거로서 HEFCE는 첫째, 5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학과를 최소한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숫자가 무려 87개에 이르고 있으며 둘째, 5 및 5*의 평가를 받은 학과의 전체 숫자는 1992년의 308개에서 497개로 크게 늘어났고 셋째, 중간 수준인 3a 및 3b의 평가를 받은 학과의 숫자도 1992년의 589개에서 716개로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폴리테크닉 출신 신생 대학들의 경우 이번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의 위상을 결정짓는 출발점이자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3a 및 3b의 평가를 받은 학과의 숫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992년(96개)에 비해 세 배 이상 늘어남으로써(351개) 각종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들 신생 대학들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생 대학들 가운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대학은 유일하게 20위 안에 들어간 Sheffield Hallam이며(19위, <표> 참조), 이밖에 Westminster, Portsmouth, Thames Valley, East London, Liverpool John Moores 등이 좋은 성적을 내는 신생 대학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번 평가에서는 일부 대학들이 평균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실적이 저조한 일부 교수들을 고의로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논문 발표 실적이 우수한 학자들을 선별해서 평가가 시행되기 직전에 새로 교수로 채용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함으로써, 과연 대학들의 순위가 올바르게 매겨졌는가 하는 공정성 여부를 두고 다소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번 평가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한 Oxford의 경우, 1992년의 평가에서는 99.9%의 교수들이

<표> 영국 대학의 연구실적 순위(상위 20개 대학)

순위	대학	평균성적
1	University of Oxford	6.67
2	University of Cambridge	6.49
3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6.27
4	Imperial College of Science	5.98
5	University College London	5.82
6	UMIST	5.60
7	University of Bath	5.54
8	University of Warwick	5.51
9	Lancaster University	5.49
10	University of York	5.48
11	University of Essex	5.44
12	University of Sussex	5.35
13	University of Edinburgh	5.34
14	University of Bristol	5.33
15	University of Wales, Cardiff	5.22
16	University of St. Andrews	5.22
17	Cranfield University	5.22
18	University of Durham	5.21
19	University of Sheffield	5.20
20	University of Southampton	5.19

주: 평균성적은 7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임.

평가대상에서 포함되었으나 이번에는 무려 10분의 1에 해당하는 교수들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세밀한 평가방법상의 기교는 결국 이번 평가에서 Oxford가 전체 1위를 차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Oxford 이외에도 몇몇 다른 대학들이 유사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순위를 상당히 끌어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당연히 이에 대한 비판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경우에는 모든 교수들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별도 기준에 입각해서 독자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별도의 순위표를 작성, Oxford의 순위를 Cambridge 및 자신보다 뒤쳐진 것으로 발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몇몇 대학에서는 평가 대상기간인 최근 4년 동안의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수들을 영입해서 평가 순위를

끌어올린 것이 사실이며, 이를 두고 다른 대학들로부터 "논문을 돈주고 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순위를 둘러싼 대학들 간의 신경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다.

어쨌든 이같은 과정을 거쳐 3월 초에는 각 대학들에 대한 영국 정부의 지원금 규모가 확정되었는데, 대학별 지원금 규모의 결정에는 앞서 제시된 연구실적 평가결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5내지 5*의 평가를 받거나 혹은 지난번 1992년의 평가 때보다 성적이 향상된 학과가 많을수록 더욱 많은 지원금을 받게끔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University College London과 Oxford에 대한 지원금 규모는 총액 대비로 각각 9.5%와 7.5%가 늘어났으며, 신생 대학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적 향상을 보인 Nottingham Trent University의 경우에도 연구보조금의 증가율이 무려 74%에 이르렀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재앙을 당한 대학들도 눈에 띈다. 특히 이중에는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높은 명성을 유지하던 명문대학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의 분위기가 규모가 큰 어느 한 학과의 성적이 과거보다 조금이라도 나빠지는 경우 이것이 곧바로 지원금 규모

를 축소시키는 명분으로 작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University of Manchester가 그 대표적인 경우로서, 이 대학은 일부 의학연구 분야에서의 평가가 지난 번 평가 때보다 떨어지는 바람에 전체 지원금 규모가 0.1% 감축되는 수모를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금년에 HEFCE는 최상위 순위의 대학들에 돌아가야 할 지원금 가운데 1,200만 파운드를 떼어 내서, 이를 최하위 순위의 대학들에 배분했다. 이는 성적이 저조한 대학들에게 한꺼번에 너무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로서, 이에 따라 개별 대학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감축되더라도 그 규모가 최대한 1.2%를 초과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게끔 되었다. 문제는 이같은 조치가 결국 좋은 평가를 받은 대학들에 당연히 돌아갔어야 할 몫을 강제로 줄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경우 이 조치에 따른 금년 손실액이 약 170만 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고통을 모든 대학이 분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불만섞인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HEFCE는 내년부터는 이 조치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밖에 정부 지원금의 결정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이 도외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이같은 주장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 지원금 규모의 축소를 경험한 대학들 가운데 특히 University of Exeter, University of East Anglia, University of Hull 등은 그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에서 연구기능을 갖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대학들과의 수평적 비교 결과만을 가지고 지원금을 깎는 것은 국가적인 견지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 교협의회(Association of University Teachers; AUT)에서는 이같은 지역 차원의 역할이 어느정도인가를 정부지원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명시적 기준의 하나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현재 영국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대학 연구에 대한 영국 정부의 지원금 규모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학계 및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부족한 투자 재원을 좋은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일부 대학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Russell Group으로 불리우는 (현재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몇몇 우수한 대학의 관계자들로부터 주로 흘러나오고 있으며, 이들은 최근 2년 동안에 걸친 여러 차례의 비공식 모임을 통해 미국의 Ivy League를 본따 12 내지 20개의 우수한 대학만으로 이른바 "수퍼리그"를 구성해서 국가적으로 이들을 집중 지원해야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반해 대학 전체적으로는 순위가 낮더라도 우수한 성과를 내는 한두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하며, 만일 이같은 대학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경우 결과적으로 영국 전체의 과학기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는 않은 실정이다. HEFCE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소수정예에 의한 수퍼리그 창설이 국가적으로 분명히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기존의 지원 방식을 고수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주석1) 지표통계분석팀, 선임연구원(Tel: 02-250-3074)

